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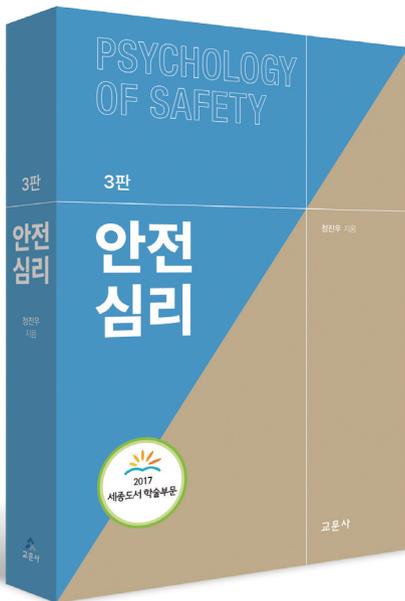
## 안전보건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안전심리(제3판)

**저자**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출판사** 교문사

**발간일** 2022년 6월 30일



안전보건 분야에서 매우 드물게 학술 부문 우수 도서(세종도서)로 선정된 바 있는 정진우 교수의 <안전심리>가 개정 3판으로 새롭게 발간됐다. 이번 개정판은 특정 부분만이 아니라 책 전반에 걸쳐 내용을 보충하고, 독자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듬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이 큰 관심을 가졌거나 가질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설명을 곳곳에 추가했다. 그런 관계로 분량도 적지 않게 늘었다. 이 책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계자, 안전보건 컨설팅기관 종사자, 안전을 전공하는 학생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이나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안전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안전보건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은  
 갖추고 있으면 좋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 사항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전문성을 높여줄 안전보건 안내서

“안전은 인간 본능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다.” 미국의 안전심리학자 스콧 켈러의 말이다. 안전보건 관리를 하는 데 심리적으로도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함축적으로 역설하는 명제다. 안전보건은 물리학보다 복잡하다고 할 수 있다. 물리는 계산과 예측이 가능한 영역인 반면에 안전보건은 인간의 감정, 판단 등 심리와 관련된 영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안전보건을 기술적·공학적으로만 접근하려는 생각은 안전의 발전 역사로 볼 때도 구시대적이며, 이는 안전보건에 대한 이해가 태부족한 데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안전공학과’라는 학과 명칭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안전보건에 대해 기술적·공학적으로만 접근한다는 뉘앙스가 강하고, 실제 대부분의 학교에서 안전보건을 기술적·공학적으로만 접근하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기술적·공학적으로 접근하는 흉내만 내고 있다. 기술·공학을 연구와 강의에서 안전보건과 실질적으로 접목하지

못하는 것이다. 공대, 자연과학대의 다른 학과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내용 정도라면 강의가 이뤄진다면 ‘안전’공학과와 존재 이유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안전보건학계의 잘못된 접근과 혼란은 안전공학과 학생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초래하는 등 많은 피해를 주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안전보건 발전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안전보건학계가 우물 안 개구리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거나 산업현장에 도움을 주는 연구를 하지 못하면, 안전보건학계가 우리나라 안전보건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적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인 안전보건학자 다수가 심리학을 학문적 배경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보건에 있어서 심리적 접근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며 안전보건 관리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안전보건에 대한 심리학적 지식은 갖추고 있으면 좋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갖추어야 할 필수적 사항이라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